



피아니스트 유영욱

어떻게 들어도 아름다운 베토벤

올해는 “운명에 굴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운명에 맞섰다” 베토벤이 태어난 지 250년이 된 특별한 해다. 그의 탄생을 기념해 대표곡 ‘비창’, ‘월광’, ‘운명’ 등을 연주하는 다양한 공연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관객들과 만나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은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첫번째 공연으로 ‘유영욱의 베토벤니즘’을 준비했다. 공연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문예회관 유튜브 채널 ‘GAC 나오는 TV’를 통해 만날 수 있으며 KBS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진행자인 아나운서 이상협이 호스트를 맡아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접속자들과 실시간 소통할 예정이다.

제2회 독일 본 베토벤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유영욱은 이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8번 비창’, ‘제14번 월광’ 등 귀에 익은 명곡들을 연주한다.

유 씨는 줄리어드 음대, 맨해튼 음대를 각각 졸업했고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심포니, 비엔나 챔버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등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음악원이 기획한 ‘베토벤 250th 슈투름 온트 드랑(Sturm und Drang)’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시리즈 공연을 24일부터



탄생 250주년 기념 온라인 공연 광주문예회관 ‘유영욱의 베토벤니즘’ 한예중, 피아노소나타 32곡 전곡 연주 서울시향, 24일 교향곡 5번 ‘운명’ 무대

12월 1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한다. 32개의 소나타는 4월 5-10번, 5월 11-15번, 6월 16-21번, 9-10월 22-26번, 11월 27-29번, 12월 30-32번으로 나눠 선보인다.

한예중은 지난달 27일 네이버 TV와 브라이브의 ‘한예중 예술극장’ 채널을 통해 선보인 베토벤 초기 소나타 무관객 공연 이후 베토벤의 전곡을 모두 듣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이번 전곡 연주를 기획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의 연주는 학생들이 많고 교수들이 해설을 담당한다. 24일 공연에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연주 중인 손민수 한예중 교수가 해설가로 나선다.

베토벤의 대표곡 ‘운명 교향곡’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향교향악단은 ‘서울시향 온라인 스테이지 베토벤의 운명’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한다. 공연은 24일 오후 5시부터 약 40분 동안 만날 수 있으며 당초 대관했던 롯데콘서트홀에서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된다.

지휘는 서울시향 부지휘자 윌슨 응이 맡아 베토벤 고유의 모토인 ‘어둠과 고난을 헤치고 광명과 환희로’를 응축해 담아낸다. 윌슨 응은 “베토벤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갈 때 얼마나 큰 힘을 지닐 수 있는지’를 온 인류에게 보여주었다”며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하는 의미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향이 코로나 19 사태 이후 국민에게 헌정하는 세 번째 온라인 공연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CC 시네마펀드 프로젝트’ 공모 8편 선정 지원...5월25일까지 접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독창적인 영상 발굴과 제작을 뒷받침하는 ‘2020 ACC 시네마펀드 프로젝트’를 공모한다.

이 프로젝트는 ACC의 영상사업에 맡고 있는 ACC 시네마테크가 아시아지역 작가의 영상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적당체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며 프로젝트 8편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영화’와 ‘아케이드 4Walls’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영화는 기존 극영화 형식에서 벗어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내용과 형식의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기획단계이거나 촬영이 50% 이상 진행되지 않아야 하며 지원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아케이드 4Walls’는 ACC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형식의 영상작품을 모집하는 분야로 호남 지역의 문화 원형이나 4차 산업기술 반영, 기후변화 시대의 인간과 환경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우대한다. 오는 10월 1일까지 설치와 시범이 가능해야 하며 지원비는 프로젝트당 1000만 원 안팎이다.

서류접수는 다음달 25일까지이며 아시아 국적을 가진 감독과 작가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1, 2차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순 지원작을 선정한다.

개발과정을 거친 최종 작품은 내년 2월 문화전당 극장 3에서 시사회를 연 뒤 다양한 곳에서 상영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5·18문학상 본상, 공선옥 소설집 ‘은주의 영화’

공선옥의 소설집 ‘은주의 영화’가 2020 5·18문학상 본상 수상작에 선정됐다. 상금 1000만원.

5·18문학상 본상심사위원회는 최근 후보작 14편을 심사해 공선옥 작품집 ‘은주의 영화’를 올해의 수상작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경자 소설가를 비롯한 심사위원회는 “환난을 견뎌 낸 변두리 삶에 대한 ‘아무렇지 않은 묘사’는 공선옥 소설가의 개성과 품성이 빛을 내는 대목이며, 사건과 인물을 통해 주제를 구체화시키는 능청맞은 경지도 이제 공선옥이 ‘자기세계’를 굳혔다는 반가움과 믿음을 갖게 해 줬다”고 평했다.

수상 작품집인 ‘은주의 영화’는 중편소설 ‘은주의 영화’를 비롯,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한 작품 8편이 수록돼 있다. 표제작 ‘은주의 영화’는 영화감독이 꿈인 은주가 카메라로 이모의 이야기를 촬영하면서 겪는 이야기다. 광주에서 대구를 가는 이모는 5·18 때 어떤 장면을 본 이후로 다리를 전다. 은주는 이모의 이야기를 무심히 듣다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경험을 한다.

곡성 출신의 공 작가는 그동안 우리 시대의 모순을 짚진하게 그려왔다. 심사평에서 보듯 “광주의 이야기를 속에서 꺼져가는 불씨를 찾아내어 드디어 시간과 공간을 함께 아우른 해



원의 불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작은 5·18문학상의 정체성을 갖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올러 본상과 함께 신인상 수상작도 선정됐다. 시 부문 유국환 ‘고요한 세계-김경철을 기리며’, 소설 부문 임혜경 ‘제주, 푸른 밤바다’와 최영선 ‘시크릿 박스’, 동화 부문 정소윤 ‘오월에 내리는 눈’이며 상금은 시와 동화 각각 300만원, 소설은 500만원.

한편 지난 2005년 제정된 5·18문학상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계승할 수 있는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6년부터는 기성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본상을 제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5월 23일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계 속의 한국 여성’ 전시 5월 15일까지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제공>

‘세계 속의 한국 여성’

전남여성가족재단, 5월15일까지 국립여성사전시관 특별교류전

전남여성가족재단이 국립여성사전시관 특별교류전 ‘세계 속의 한국 여성’을 5월 15일까지 재단 2층 전남여성문화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교류전은 ‘오늘, 여권 통문을 다시 펼쳐다’와 ‘세계 여성박물관을 가다’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여권통문(女權通文)’(1898년 9월 1일)은 30여 명의 이소사, 김소사(소사강산, 기혼여성을 지칭하는 말)들이 모여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경제활동권·참정권을 주장한 최초의 한국여성 인권선언서로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에 소개됐다. 이 여권 선언은 “신체와 수족과 이목이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찌하여 병신 모양으로 사나이의 별어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삼구여 처하여 그 절제만 받으리오”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직업을 가진 여성의 주체적 삶에 대한 선언을 나타낸다.

더불어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등 세계의 여성사, 여성운동, 페미니스트 예술 등을 담아 세계 여성박물관들을 소개하는 ‘세계 여성박물관을 가다’를 함께 전시한다.

전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전시는 재단 블로그를 통해 진행되며 오프라인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동시 입장인원을 제한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 조성사업 전남문화관광재단, 추진단체 공모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지역 특화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하고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 특구 조성사업’ 추진단체 공모를 오는 5월 12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전남도내 소재한 문화예술단체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시·군 예산 매칭을 통해 2개 단체, 총 2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 특구 조성사업은 거리와 공간 그리고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이 어우러진 융·복합적인 사업으로,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기존 도시재생사업, 마을 활성화 사업 등 하드웨어적 기반이 이루어진 곳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결합해 예술인과 주민들이 문화주체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으로 ‘담양 국제 예술축제’, ‘고흥 따르릉 목일신 거리조성’을 진행했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엑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